



“14년만의 연기 복귀 애들 덕에 용기 냈죠”

원미경, MBC ‘가화만사성’ 안방마님 배속녀역

그가 무대 위로 올라서자 수십 대의 카메라에서 셔터 소리가 터져 나왔다. 원미경(56·사진)은 멧뚃은 웃음을 지으면서도 “반갑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짚뽠 퓌피스에 머리를 틀어올린 그는 여전히 단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였다.

원미경은 1980년대 절정의 인기를 누렸던 스타였지만, 2002년 MBC TV ‘고백’ 이후 안방극장을 떠났다. 가족과 미국에서 출근 머물렀던 그는 27일 시작하는 MBC TV 주말드라마 ‘가화만사성’으로 14년 만에 돌아왔다.

◇“변한 제 모습에 우울하기도”= 원미경은 중국집 배달부로 시작해 차이나타운 최대 중식당을 연 ‘독불장군’ 남편 봉삼봉(김영철 분)에게 평생 억눌려 살아온 아내 배속녀를 연기한다.

지난달 말부터 촬영 중인 그는 “처음에는 촬영한 영상 속 제 모습을 본 다음 ‘저 여자 누구야 싶었다’고 말했다.

“제가 이렇게 늙었구나 싶어서 슬프면서도 우울하기도 했어요. 거울을 안 보면(자기 현재 모습을) 잊어버려요. 옛날 모습이 생각하게 되지, 지금 자신의 실체를 모르거든요. 더구나 지금 TV는 땀구멍까지 나올 정도로 고화질이잖아요.” 원미경은 “그래도 그 주름이 아이들을 키운 세월의 보답인 셈이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다부지게 말했다.

그는 옆에 앉은 김지호가 “(원미경에게는) 그 나이에 여배우에게서 느껴지지 않는 편안한 아름다움이 있다. 저도 그 나이가 됐을 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 싶다”고 말하자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가정이 무엇보다 중요...미국선 일부터 한

국 방송 안 바”= 원미경은 ‘가화만사성’을 복귀작으로 택한 데 대해 “저는 그 무엇보다도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가화만사성’이라는 타이틀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다”고 밝혔다.

원미경이 남편인 이상수 PD와 미국으로 과감히 떠난 것도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연기를 하면서도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건 아닌지 매일 열두 번도 넘게 고민하는 날들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어렵게 결심한 미국 행인 만큼, 원미경은 미국에서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일부러 보지 않았다.

“아이 아빠와 제가 ‘블랙홀’로 확 빨려 들어갈까 봐서요. 그러다가 영화 ‘암살’을 하나 봤는데, 보고 나서도 ‘우리 안 보는 게 낫겠다’고 했어요.”

이처럼 최근까지도 연기 재개를 상상도 못했던 원미경이 아이들 응원 덕분에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는 “아이들이 다 크기도 했고, 엄마가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한 게 영향이 컸다”면서 “특히 제가 연기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막내가 ‘엄마, 이제는 날개를 달고 날아가세요’라고 말해줘 용기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잘 돌아왔다 싶어...자유 누리는 맛도”= 원미경은 ‘가화만사성’ 첫 촬영 때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연기하는 모습을 보느라 자기 대사도 잊어버렸다. 카메라 앞에서 자주 어색함을 느꼈지만, 주변 연기자와 스태프 도움으로 안착할 수 있었다.

원미경은 “내가 왜 다시 나왔지, 두려움도 있었는데 지금은 잘 돌아왔다 싶다”면서 “미국에

서는 한 번도 혼자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조금씩 자유를 누리는 맛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화만사성’은 김수현 작가가 집필하는 SBS TV ‘그레, 그런거야’와 맞붙는다. 원미경은 과거 김수현 작가의 작품에 여러 차례 출연한 바 있다. 원미경은 귀국 후 김 작가와 통화를 통해 서로 잘 되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했다.

“김수현 선생님과 경쟁작으로 만나서 기본도 묘하고 더 긴장도 되죠. 그래도 선생님 작품이 잘 돼야 할 정도로 제가 착하지는 않아요. (웃음)”

‘가화만사성’은 차이나타운 최대 중식당인 ‘가화만사성’을 운영하는 봉삼봉대가족의 바람 잘 날 없는 이야기다. 오는 8월까지 이어지는 50부작 드라마의 캐릭터들은 전형적이다.

자수성가한 중식당 ‘가화만사성’ 주인 봉삼봉은 목소리 큰 독불장군이고, 아내 배속녀는 남편만 받들고 살아온 순종적인 인물이다.

1993년 KBS 1TV 드라마 ‘들국화’에서 부부 등장했던 김영철-원미경은 23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춘다.

김소연이 씩씩하지만 아픔을 간직한 딸뎌 봉해령을, 이필모가 봉해령에게 차갑기만 한 남편 유현기를, 이상우가 봉해령을 연모하는 의사 서지건을 연기한다.

봉해령의 쌍둥이 오빠로 사고뭉치인 봉만호 역으로 장인섭이, ‘가화만사성’을 지탱하는 역적스러운 만매느리이지만 남편 봉만호 때문에 근심이 떠나지 않는 한미순 역으로 김지호가 출연한다.

윤진이가 갓난아이 한 명을 품고서 8개월 만에 나타난 직원 주세리로 등장, 봉만호-한미순 부부를 위기로 몰고 간다. /연합뉴스

전도연

돌아온 ‘칸의 여왕’

11년만에 tvN 드라마 ‘굿 와이프’ 출연

‘칸의 여왕’ 전도연(사진)이 11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왔다.

전도연이 tvN 드라마 ‘굿 와이프’에 출연한다고 소속사 매니지먼트썬이 24일 밝혔다. 전도연의 드라마 출연은 2005년 SBS ‘프라하의 연인’ 이후 11년 만이다.

동명의 미국 인기드라마를 리메이크한 ‘굿 와이프’는 검사 남편이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되자,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내조에만 전념하던 혜경(전도연 분)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15년 만에 변호사로 복귀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법정 수사극이다.



소속사는 “남편의 배신으로 비랑 끝까지 물린 한 여자가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겪는 심리적 변화와 감정을 집중적으로 그려며 직업인으로서, 엄마로서 끈기있게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굿 와이프’는 오는 6월말 방송 예정이다. /연합뉴스

개봉 예매율 27.2% 영화 ‘귀향’ 1위

“상영관 늘려달라” 청원 잇따라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픈 삶을 조명한 영화 ‘귀향’(사진)이 개봉일인 24일 예매율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날 개봉하는 영화 ‘귀향’은 현재 예매점유율 27.2%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데드풀’(13.8%)과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토피아’(12.6%)에 큰 차이로 앞서 있다.

‘귀향’은 위안부 피해자인 강일출 할머니가 미술 심리치료 중에 그린 ‘태워지는 처녀들’을 모티브로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극영화다.

이 영화는 제작에 착수한 지 14년 만에 7만5000명이 넘는 국민의 후원과 배우·제작자의 애정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이후 한동안 투자배급사를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어렵사리 투자배급사가 결정되고 나서는 상영관 확보에 애를 먹었다. 지난해 말

예정이었던 개봉일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그간 위안부 소재 영화들이 하나같이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최근 한일 양국 간 위안부 협상이 타결된 상황에서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업체들이 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영화에 대한 평단의 호평과 ‘귀향’의 상영관을 늘려달라는 온라인 청원이 이어지며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이 상영에 동참했다.

애초 300개의 상영관 확보를 목표로 했던 ‘귀향’은 이날 전국 340개 극장, 500여개 스크린에서 개봉한다.

이 영화를 배급하는 와이퍼쳐스의 이혁중 상무는 “국민의 손으로 만들고, 국민 참여로 상영관이 확대된 최초의 영화”라며

“앞으로 영화가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⑥ 40 콧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⑧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위의 여자)
⑨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셜 (별이 되어 빛나라)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⑩ 20 시사 인사이드35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재)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⑪ 40 나는 몸신이다(재)	00 KBS 네트워크 특선 (필통) 55 인생 우리말(재)	00 공사창립 특별기획 (태양의 후예)(재)	00 주말특별기획 (내 딸 금사월)(재)	00 닥터 365 05 이적직업 별난학교
⑫	00 KBS 뉴스 12	05 인간극장 스페셜	00 MBC 청오뉴스 20 주말드라마 (엄마)(재)	00 SBS 12 뉴스 50 닥터 365 55 남도의 보물 100선
① 10 뉴스특급	00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30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스페셜	20 자연의 신비 슈퍼센스 55 건강 클리닉
② 30 직언직설	00 2015-2016 프로배구	05 후토스 읽어버린 숲(재) 30 자동차부채상 위키	30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스페셜	55 닥터 365
③	55 튜브생활제조사(재)	05 후토스 읽어버린 숲(재) 30 자동차부채상 위키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싸이걸스 35 프리파라	00 3시 뉴스 브리핑
④ 00 쾌도남마	00 오늘의 경제 10 청년 대한민국 잘 부탁드립니다(재)	00 TV 유치원 30 이욱정PD의 자연을 담은 한끼 40 동물의 세계	05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40 20대 국회의원선거 경강정책 방송연설	00 고향이 보인다 30 구리가 탐구 생활
⑤ 30 김승권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10 제20대 총선 정강정책연설 30 시사진단	00 로보텍스 30 파파독	00 MBC 이브닝 뉴스	00 번신자동차 포포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KBC 생방송 투데이
⑦ 0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밥상	50 일일 드라마 (천상의 약속)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저널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며느리의 성)
⑧ 30 서민갑부(재)	25 일일연속극 (우리 집 골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00 SBS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⑨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⑩ 50 채널A 스포츠	00 KBS 스포츠 55 송터	00 공사창립 특별기획 (태양의 후예)	00 수목미니시리즈 (한번 더 해피엔딩)	00 드라마 스페셜 (돌이와요 아저씨)
⑪ 00 아내가 뽀뽀다 남편법정(재)	00 KBS 뉴스라인 40 특집다큐 (2016 금연전쟁 제2편)	10 해피 투게더	10 위대한 유산 도시사이 시골살이	10 자기가
⑫ 40 부르면 갑니다 머슴아들(재)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울맛 유직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30 MBC 뉴스 24 50 MBC 다큐프라임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8 생활 영어 05:30 건강한 아침 05:40 만나고 싶습니다(재) 06:10 세계의 눈 07:00 지파티터스(재) 07:30 꼬마버스 타요(재) 07:45 로보카 폴리 08:00 덩동명 유치원 1 08:10 통통가족 08:15 그림을 그려요 08:20 덩동명 유치원 2 08:30 두다디콩 08:40 덩동명 유치원 논 08:45 방귀대장 뽕뽕이
09:00 크레멍의 창의력 팽팡 09:40 달려주세요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1:10 다큐 오늘 11:20 세계테마기행 (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연중기획 (행복한 교육세상) 13:05 역사채널E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3:40 사이먼 시즈3-왔다! 사춘기 13:50 우당탕탕 아이쿠 14:00 곤
14:30 캐니멀 14:50 빠빠에 친구 15:00 꼬마 철학자 휴고 15:15 마야의 모험 15:30 세계사 시간여행 15:45 모피와 친구들 15:50 크레멍의 창의력 팽팡(재)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덩동명 유치원1~3(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로보카 폴리(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너하니1~4 19:00 EBS 어린이 드라마 (블루투 비밀결사대)
19:30 EBS 뉴스 19:50 사선에서 20:40 다큐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살아있는 지구를 만나다 누집원) 21:30 한국기행 (겨울 지리산에 가온) 21: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23:50 역사채널 6(재) 24:10 EBS 스포츠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25일(음 1월 18일 丁丑)
<p>子 48년생 임장을 분명히 하고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할 때다. 60년생 적극적인 공격보다 더 완벽한 방어책은 없다. 72년생 정반대의 시기로 바라본다면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84년생 쉽게 눈에 띄는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5, 24</p>	<p>午 42년생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것 속에 함정이 숨어 있다. 54년생 우연한 기회가 행운으로 연결되리라. 66년생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숙명적인 단계에 놓여있다. 78년생 긴사와 연결될 가능성이 확인해진다. 행운의 숫자 : 90, 09</p>
<p>丑 49년생 정반 수용한다면 좋은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 61년생 성공이 눈앞에 와 있으니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자. 73년생 심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대국이다. 85년생 장고 끝에 얻은 결정이 만사를 주도하리라. 행운의 숫자 : 25, 45</p>	<p>未 43년생 중저대한 일이므로 잘 지켜 두어야 할 것이다. 55년생 평상시에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67년생 낯선 이와 상면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79년생 세월에 묻혀 버릴 뻔한 비밀을 소상히 듣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29, 48</p>
<p>寅 50년생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준비하고 있어야겠다. 62년생 한시도 쉴 수없는 숨찬 하루가 될 것이다. 74년생 당연히 잘되어 지라라고 믿었던 것이 여의지 않을 수다. 86년생 계획했던 대로 진행되리라. 행운의 숫자 : 16, 19</p>	<p>申 44년생 함께하는 자리에서 실행하는 것이 제일 낫다. 56년생 구상만 할 뿐 추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68년생 슬픈관란 위협의 재재이니라. 80년생 여태까지 내버려두었던 것을 다시 찾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57, 86</p>
<p>卯 51년생 무시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 63년생 선수를 친다면 확실히 기선을 제압할 수 있다. 75년생 지나친 조심은 추진력을 약화시킬 뿐이다. 87년생 오판한다면 반드시 손재수가 따를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37, 45</p>	<p>酉 45년생 상부상조하는 관계로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 57년생 진실이 왜곡될 수도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69년생 무의미하다면 굳이 열매일 필요는 없다. 81년생 다양함을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이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31, 42</p>
<p>辰 40년생 국민 태도에 매진해야겠다. 52년생 불집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넘어갈 것이다. 64년생 역발상이 빛날 수다. 76년생 전반적인 점검을 해봐야 할 시기이다. 88년생 좋은 약은 일에 쓰고 잠된 말은 구에 거슬리느니라. 행운의 숫자 : 53, 87</p>	<p>戌 46년생 마무리가 시원치 않은 판세이다. 58년생 완전히 반전될 수도 있는 기운이 보이니 끝까지 주목하라. 70년생 정신적 휴식과 기본 전환이 절실한 때이다. 82년생 산대를 먼저 파악해야 완벽하게 대처하리라. 행운의 숫자 : 94, 05</p>
<p>巳 41년생 예리한 판단이 필요하다. 53년생 먼저 나서야 쉽게 풀려 지느니라. 65년생 특이한 양상이 비친다. 77년생 소문으로 일일 어지던 바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89년생 방심하면 우환을 면치 못하리라. 행운의 숫자 : 62, 73</p>	<p>亥 47년생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 불리하다. 59년생 포부를 펼쳐도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 71년생 현재의 행방을 좌우할 만한 요체는 따로 없느니라. 83년생 일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대의를 생각하자. 행운의 숫자 : 68, 95</p>